



한형석 (사)한국계육협회장

新年辭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띠 해였던 을유년 한해가 지고 드디어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를 맞아 계육업계 그리고 관련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동안 계육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소비회복과 육계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가 했더니 예기치 않았던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인해 또다시 소비위축, 육계가격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재연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변국가에서의 발병보도만으로도 국내 닭고기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가금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를 방문, '조류독감'이라는 표현대신 AI(Avian Infuenza),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상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언제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조류인플루엔자는 닭고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중앙



일간지 광고계재를 비롯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사와 정책당국의 협조를 얻어 TV 광고 등도 현재 집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위기에 따른 자구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땀과 노력을 통해 생산한 닭고기가 어느 육류보다도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비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정상의 위치에 섰을 때 국내 닭고기 산업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추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육계자조금사업의 시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됐던 육계자조금 대의원총회가 호남 지역의 폭설피해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관계로 성원이 되지 않아 유회 됐지만 육계자조금의 시행은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사업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본회 회원사, 그리고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

올 병술년 한해도 예년에 비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증가와 육계의 과잉생산조짐 등 많은 난관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닭고기 산업은 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역시 많은 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출시장의 개척, 유통시장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등 우리가 도전해나가야 할 분야는 산업전반에 걸쳐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이 우리에게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쳐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일치 단결해 대처해 나간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병술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회원 그리고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